



철의 노동자

조합원 중심!
단일노조 완성!
생존권 사수!

제 14 - 30호 / 2026년 08월 10일 / FAX(031)680-6850 / md.kwmu.kr /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지부장 이현우

사람이 죽었다. 결국, 압수수색 시작!

- 고용노동부와 경찰, 만도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까지 조사 착수

노동자가 사망한 지 20일이 넘었다. 고인은 아직 장례식장 안치실에 있고, 유가족은 매일 자식을 잃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다. 언제나 끝날 수 있을까? 기약이 없다.

결국, 지난 8/7일(금)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평택사업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임의적인 확인 단계를 넘어 강제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이번 사망사고로 입건된 사람은 평택공장 센터장과 외주업체 대표를 포함해 5명이다.

■ 산보위를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적정인력 확보 요구했다!

노동조합은 무분별한 외주화의 위험에 주목하고 있다. 긴급 산보위 개최 전 인원 부족을 사측도 공감했다.

그러나 적정인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요구에 회사의 태도는 달라졌다.



실무에서 협의되고 접근된 내용이 본회의에서 뒤집혔고 파행되었다. 심지어 적정인력 요구에 대해 '2026년 임단협에서 논의하자' 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재발방지를 요구했는데, 뜬금없이 임단협에서 논의하자는 얘기는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다.

□ 상황을 여기까지 악화시킨, 장본인은 모습을 드러내라!

휴가 전 산보위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회사의 태도가 돌변했다. 누가 산보위 파행을 지시했나 묻지 않을 수 없다. 인력부족, 외주화 위험, 관리자 생산 투입을 해결해야 할 상황에서, 누가 무엇을 믿고 해결 기회를 권하자며 상황을 악화시켰는가? 모습을 드러내라.

휴가 동안, 사측은 유가족 회유에 안간힘

- 앞에서는 노조 요구 무시, 뒤로는 노무사를 통해 합의 시도!

인면수심(人面獸心)이라고 했다.(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마음은 짐승과 같다는 뜻)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한 사측은 노동조합 몰래 유가족 접촉을 시도했고, 노무사를 통해 합의금으로 회유를 시도했다. 유가족은 회사가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했지만 거절했다고 전했다.

■ 사측은 오판하지 마라!

유가족과 보상 문제만 정리되면, 노동조합도 힘을 잃을 것이라는 사측의 판단은 크나큰 오판이다. 유가족은 회사와의 협상은 노동조합을 통해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사측은 지금 유가족과 합의도 하지 못했고,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휴가 전 재발방지를 마련하고 산보위를 마무리할 수 있었지만 그 기회도 건어쥔다. 노조와 대화를 거부하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더 이상 오판하지 마라. 어디까지 확대될지 보고 싶은가? 이제 회사가 답할 차례다.

□ 중대재해 이후, 갈수록 또 다른 의혹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의혹들도 하나둘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노동조합은 지회 산보위가 실제로 개최됐는지 ‘진위 여부’를 고용노동부에 제기했다. 사측이 개최했다고 주장하는 지회 2/4분기 산보위가 실제 개최됐는지, 회의록과 합의내용은 누가, 어떻게 작성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그 이후 원주와 익산 그리고 판교까지 산보위 문제는 더 확대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언론에서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협력업체 운영을 둘러싼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하며 관계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보전업무까지 외주업체를 통해 해결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 사측의 선택이었고 책임이다.

시간이 갈수록 새로운 의혹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사망사고는 여기서 끝나야 한다. 어제는 외주 노동자였지만, 내일은 우리 조합원일 수 있다. 평택에서 10년전 발생했던 사고 당시 안전조치만 했더라도, 평범했던 가정의 28살 소중한 아들은 지킬 수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대표이사가 원칙이라고 한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정몽원 회장뿐이다.